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국내 엔캐리(Yen-Carry) 자금 유출 우려
- ‘백기사’ 토종 펀드 출현

경영 노트

- 고령 인력의 새로운 고용 형태 : ‘브리지잡’(Bridge Job)

사회 트렌드

- 수퍼 닷글족(族)
- 인스파레이션(Inspiration)

저널 브리프

- 지구촌 경제 애국주의 불붙다

洗心錄

- 서드 에이지(Third Age)

□ 국내 엔캐리(Yen-Carry) 자금 유출 우려

- 2001년 이후 5년간 지속되어 온 일본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중단 될 가능성이 높아짐
 - 2001년 이후 일본은행은 정책 금리인 공정할인율을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인 연 0.1%를 유지하고 있음
 - 일본 행정부는 미약한 경기 회복을 이유로 정책 금리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정책의 중단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만약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의 변경을 결정할 경우, 그동안 세계 주요 신흥 시장에 유입되어 있는 일본 자금이 단기간 내 빠져나갈 우려가 있음
 - 이는 신흥 시장 및 개도국 주식 시장의 침체, 엔/달러 환율의 상승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증대시킬 가능성을 높여줌

□ '백기사' 토종 펀드 출현

- 외국계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위협이 예상되는 국내 우량 기업들의 지분에 투자 하는 토종 펀드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지난해 7월 2년여 동안 지속된 소버린의 SK그룹에 대한 경영권 인수 시도 이후 최근 KT&G를 중심으로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외국계 투기 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이 재가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적대적 M&A가 예상되는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우호 세력 즉, '백기사' 역할을 담당하는 토종 펀드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향후 '백기사' 토종 펀드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기여가 높고 우량한 국내 기업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 인력의 새로운 고용 형태 : ‘브리지잡’(Bridge Job)

- (개요) 최근 미국에서는 고령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지잡’(Bridge Job)이란 새로운 고용 형태가 인기를 얻고 있음
 - ‘브리지잡’이란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퇴직(정년퇴직 포함)후, 10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파트타임 내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를 말함
 - 일종의 재고용의 형태로 전에 근무했던 직장이나 다른 직장에서 프로젝트성 업무나 고객 응대 업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미국 근로자의 절반에서 ⅔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완전 은퇴 이전에 브리지잡을 갖는 것으로 조사됨(美 보스턴대 노령·근로센터, 2005)

- (배경) 퇴직 후 퇴직연금의 부족과 퇴직자들의 갑작스런 노동 중단이 개인적으로나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
 - (개인 측면) 정형화된 일상 생활에서의 갑작스런 퇴직은 퇴직자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신·신체적으로도 좋지 않음
 - (경제 측면) 미국의 경우, 7,60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2010년께는 1,00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반응) 회사 충성도와 생산성이 높은 高연령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차세대에 전수해 주고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음

- (시사점) 우리 나라도 고령 인력 활용이 이슈화 되고 있어 브리지잡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많은 기업이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검토하고 있음
 - 그런데, 임금피크제는 감소된 임금에 맞는 업무로 대상자의 인력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 인력의 노하우 전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업무 노하우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업무 후임자가 해당 업무의 노하우를 다시 쌓기까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기업들이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브리지잡 도입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업무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감소가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임

□ 슈퍼 댓글족(族)

- 슈퍼 댓글족이란 일반 네티즌보다 월등히 많은 댓글을 생산해 사이버 여론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소수의 네티즌들을 말함
 -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 지난 12월 20일부터 30일 동안 네이버 뉴스 사이트 방문자 4,194만 명 중 1건이라도 댓글을 남기는 ‘댓글족’은 전체의 약 35만 명(0.84%)이고, 한달 평균 70건 이상 댓글을 작성하는 ‘슈퍼-댓글족’은 약 1만 1,878 명(전체의 0.003%, 댓글족 중 3.4%)인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댓글을 대량으로 쏟아내는 슈퍼-댓글족이 댓글 문화를 주도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중앙일보 조사를 일반화시켜 보면,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댓글은 하루 평균 50만~100만 건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댓글족 중 3.4%에 불과한 슈퍼 댓글족이 전체 댓글의 절반이 넘는 50.6%를 작성하고 있음
 - 월평균 1,000건 이상의 댓글을 작성하는 ‘울트라 댓글족’은 137명이었는데, 이들이 쓰는 댓글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인터넷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공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극소수의 네티즌에 의해 움직여지는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 인스파레이션(Inspiration)

- 스파(spa)와 영감(inspiration)을 합성한 단어로서 페이스 팝콘이 <미래생활 사전(Dictionary of the future)>에서 언급함
 - 스파(온천)가 있는 휴양지로서 몸과 머리와 영혼을 모두 정화할 수 있는 시설로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음
 - 이렇게 미국인이 인스파레이션을 위해 소비하는 돈은 1997년에 21억 달러였던 것이 1999년에는 53억 달러로 급격히 늘었음
 - 이는 스키 리조트에 소비한 31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며, 영화에 소비한 63억 달러에 근접하는 액수임

□ 지구촌 경제 애국주의 불붙다*

- (경제 애국주의 확산)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를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시도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에까지 퍼지고 있음
 - (경제 애국주의의 본격화) 2005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경제 애국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국가 간 대립마저 유발시키고 있음
 - 미국: 중국 해양석유총공사의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 인수 시도는 안보를 문제 삼은 미국 의회의 방해로 불발되었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두바이포트월드의 영국 항만운영회사 P&O(뉴욕, 마이애미 등 미국 6개 항구운영권 보유) 인수도 미국 의회의 반대로 연기되고 있음
 - 독일: 런던증권거래소와의 합병을 추진하던 독일 증권거래소 CEO가 독일 증권거래소의 가치 하락을 우려한 영국과 미국의 헤지펀드로 구성된 주주 압력으로 사퇴하자 헤지펀드 규제 강화 여론이 고조. 독일 정부는 결국 사모펀드 등 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세계 1위 철강업체인 인도계 미탈스틸(현재는 영국에 본사가 위치)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철강사 아르셀로를 인수하려고 하자 포이즌 필(독소조항) 등 M&A 방어 조항을 입법화하는 등 맞대응에 나섬
 -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립: 이탈리아 에너지업체인 에넬이 프랑스 에너지 기업 수에즈를 인수하려하자 프랑스 국영 에너지업체인 가즈드프랑스가 먼저 인수함. 이에 대해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프랑스의 자국 기업 보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고 밝힘
 - 폴란드: 폴란드 정부도 EU 집행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디토의 자국 은행 HVB 인수를 저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경제 내셔널리즘의 급속한 확산으로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유지가 어려워질 공산이 크며,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 확장 또한 제한을 받을 것임
 - 더욱이 각국 정부의 애국주의적 태도는 보호주의를 강화시켜 무역 마찰 등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5.03.1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서드 에이지(Third Age)

사회는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채근한다. “안전띠를 매고 착륙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나 장수 혁명은 우리에게 앞 세대보다 30년의 보너스 수명(life bonus)을 안겨주었다. 중년 이후는 더 이상 인생의 내리막을 보며 청년기를 선망하는 시기가 아니다. 이 시기를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최종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년은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투자기이며,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기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윌리엄 새들러의 주장은 우리에게 커다란 공감을 주고 있다. **“중년은 더는 세월의 사다리를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서둘러 짐을 싸기에는 너무 이르다. 중년의 삶을 놓친다면 우리는 너무 짧게 살고 너무 길게 죽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20세기가 아동기와 청년기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성인기와 장년기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들러가 그의 저서 <The Third Age>에서 주목하는 시기는 마흔 이후 30년에 해당하는 시기다. 생의 주기(life course)의 첫째 단계인 제1연령기(10~20대 초반)는 학습을 통해 1차적인 성장이 이뤄지는 ‘배움’의 단계이다. 제2연령기(20~30대)는 1차 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성(직업과 경제활동)을 발휘하고 사회적인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일과 가정’의 단계이다.

네 단계 중 가장 긴 제3연령기(40~70대 중후반)가 바로 ‘서드 에이지’이다. 제1연령기 때 학습을 통해 이뤄지는 1차 성장과는 다른 2차 성장을 통해 원숙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생활’을 위한 단계다. 제4연령기는 ‘노화’의 시기로 삶을 정리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다.

인생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6가지 원칙

미국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중년 문제를 연구해 온 새들러는 마흔이 넘는 남녀 200여 명을 인터뷰한 뒤 그중 50여 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했다. 그들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봄날처럼 화창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왜일까. **인생의 전반기에 ‘청춘의 성장’이 있었다면, 후반기엔 ‘중년의 성장’이 있었던 것이다!**

①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 : 중년의 정체성을 위해 그동안 각박하게 살아오면서 무시한 ‘내 안의 어린 아이’를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즐거움, 흥분, 장난기, 호기심, 상상력 등 어린 아이의 특성이 중년의 성공적인 삶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나이를 부정하는 등의 원숙함이 결여된 젊음의 추구는 ‘최악의 추함’이며, 바로 ‘젊음과 원숙함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②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 : 그동안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해온 대다수 사람들은 은퇴 후 ‘역할 없는 역할’을 가장 두려워한다. 따라서 ‘직장에서 풀려나는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일’의 개념을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 이외에 자원봉사, 집안일, 취미 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가 활동과 의미 있는 일 사이의 ‘건강한 균형’이 중요하다.

③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조화** : 그동안 자신에 대한 배려를 이기심과 혼동해 왔다. 자신에 대해 배려하는 법을 알 때 타인에 대한 배려도 가능하다.

④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 :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세우는 법을 배워라. 그렇지만 주변의 도움과 격려를 흔쾌히 받아들여라.

⑤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 더 이상 삶의 경험과 도전으로부터 새롭게 배울 게 없다는 무심한 결론은 중년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이다.

⑥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사이의 조화** : 중년의 해방과 중년의 위기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스스로를 속박하는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마흔 이후에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을 강조한다.

“부드러워지려면 먼저 강해져야 한다.”

- 잭 웰치(1935~) : GE의 전회장